

##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반려동물 상실 경험으로 본 기독교사회윤리적 성찰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심우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경우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연구 배경 및 사건 개요

### III. 이론적 배경

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다스림(Dominion Mandate)
2. 박탈된 슬픔(Disenfranchised Grief)과 공동체적 애도
3. 창조세계 돌봄(Creation Care)과 One Health
4. 공동선(Common Good)과 공적 신앙의 확장

### 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 참여자
3. 자료 수집 방법
4. 자료 분석 절차
5. 연구 윤리와 신뢰성 확보

### V. 연구 결과

1. 비인간 생명의 취약성과 제도적 배제 - 일상적 화학물질 노출과 One Health의 결여
2. 박탈된 애도와 Pet Loss Syndrome
3. 사회적 침묵과 죄책감의 서사
4. 공적 책임과 정의에 대한 요구
5. 분석 결과 요약 및 해석

### VI. 논의

1. 인간 중심적 재난 대응 체계와 민감 생명체의 비가시화
2. 박탈된 애도와 관계적 생명윤리의 결핍
3. One Health 관점의 윤리적 전환과 창조세계 돌봄의 신학적 과제
4. 사회복지 실천의 확장 and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 VII. 나가는 말

---

• ABSTRACT •

---

## A Christian Social Ethical Reflection on Companion Animal Loss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ssociate Prof. Seongho Kim (Korean Bible University)  
Prof. Woochan Shim (Dae-Jeon University)  
Lecturer, Gyeong Woo Jang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simultaneously harmed humans and companion animals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environment,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bereaved caregivers. The findings show that animals displayed early signs of toxic exposure, yet institutional responses failed to recognize nonhuman victims as part of the disaster-affected population. Caregivers, who regarded their animals as family, faced socially unacknowledged loss, resulting in intensified disenfranchised grief. Some participants eventually moved beyond isolated mourning and became public actors demanding accountability from corporations and the state.

These results reveal the limitations of anthropocentric disaster frameworks and underscore the need to incorporate human-animal-environment interdependence into disaster response through a One Health perspective.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Christian social ethics, particularly the tradition of creation care, can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companion-animal loss as a matter of public mourning and for expanding theological and social-welfare discourse.

**Key words:** humidifier disinfectant, companion animal loss, disenfranchised grief, disaster response, One Health, Creation Care

---

## I. 들어가는 말

21세기 인류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대규모 재난이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의 건강과 생존만이 아니라 동물과 생태계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현대 사회의 재난 대응과 복지 체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비인간 생명의 피해와 고통은 제도와 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넘어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작동하는 사회 구조를 드러낸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그 구조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환경 재난이다. 가정이라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인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응체계는 동물의 피해를 제도적·사회적 차원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같은 환경에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비인간 생명을 제도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는 생명에 대한 위계적 사고, 곧 인간 생명만을 중심에 두는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의 산물이다.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이를 돌보고 보전할 책임을 부여한다(창 2:15). 그러나 현실의 재난 대응과 복지 체계는 이러한 신앙적 명령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교회와 신앙공동체 역시 이러한 구조 안에서 반려동물의 죽음과 보호자의 슬픔을 ‘공적 신앙의 문제’로 다루지 못해왔다. 생태계 전체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신앙의 언어와 공동체적 애도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이는 곧 창조세계 돌봄의 윤리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이 신앙의 실천 영역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구체

적으로는 첫째,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비인간 생명의 취약성과 사회적 배제를 분석하고, 둘째, 박박달된 애도의 경험이 신앙 공동체의 돌봄과 돌봄의 단절 지점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보고, 셋째, 인간·동물·환경의 상호의존성을 One Health 관점과 창조세계 신학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넷째,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과 윤리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환경보전이나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 사회윤리 담론에 생명 공동체적 시각을 확장하는 데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상실 경험을 사회적·신학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인간만이 아닌 피조물 전체의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과 복지 담론에 내재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한다. 나아가 피해자 개인의 고통 서사를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공적 책무와 연결함으로써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재난 대응의 윤리적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보전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 II. 연구 배경 및 사건 개요

2011년 대한민국 사회는 사상 초유의 환경보전 재난으로 기록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목격했다. 이 사건은 특정 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이 주거 공간 내부에서 장기간 흡입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이 곧 재난의 현장이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정 내 공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품을 사용했지만, 그 결과가 치명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이 참사는 단순한 환경 사고가 아니라 일상 생활과 재난의 경계가 무너진 생활환경 재난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sup>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약 627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는 1만 4천 명 이상, 건강 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된다.<sup>2)</sup> 2020년 기준 환경부에 피해를 공식 신고한 사람 6,817명 중 사망자는 1,55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피해의 규모가 단순히 일부 사용자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였음을 입증한다.<sup>3)</sup>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시 국민의 약 17.4%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으며, 약 524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가정 내 생활공간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동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반려동물이 호흡기 질환, 급성 독성 반응, 혹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약 40가구의 사례를 수집하여 100마리의 반려동물 피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건강 이상을 보고한 가구의 65.2%에서 보호자 역시 건강 이상을 경험했으며, 반려동물의 사망 후 보호자들은 심각한 우울감, 죄책감, 고립감 등을 호소했다. 고양이 16마리 중 10마리, 개 12마리 중 12마리가 사망했으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질병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다.<sup>4)</sup>

1) 홍성만, 한준섭 “사고, 재난, 그리고 참사의 사회적 구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확산과정,” 『한국공공관리학보』 33/4 (2019), 223.

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본권 1: 가습기살균제 참사, (2022). 9.

3) 변지은, 김희성, 박문영, 이경무, 홍명근, 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6/4 (2020), 457.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반려동물 피해가 단순한 ‘부수적 피해’로 취급되며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반려동물은 재난 피해자 범주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었고, 보호자의 상실 경험은 공적 담론에서 철저히 주변화되었다. 보호자들은 사랑하는 존재를 잃고도 애도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사회적·제도적 지지 체계의 부재 속에서 고립된 슬픔을 감내해야 했다. 이는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재난 대응 및 복지 체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반려동물 피해와 보호자의 상실 경험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2020년 연구책임자 주도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반려동물 보호자 8가구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인터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경위, 반려동물의 질병과 사망 과정, 보호자의 심리적·사회적 경험,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대응에 대한 평가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인터뷰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따라 개방코딩과 주제분석을 거쳐 범주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보호자의 박탈된 애도 경험, 인간 중심적 재난 대응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관계적 생명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도출되었다.

### III. 이론적 배경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산업 영역에 한정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조 속에 잠재해 있는 복합적 위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특성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생태계 전체를 동시에 위협하며 그 피해는 상호적으로 확산된다.<sup>5)</sup> 그럼에도 불

4) KBVP 한국수의임상포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확대 및 제품 위해성 조사—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KBVP, 2020), 7-88.

5) Haorui Wu, Lindsay Heyland, Mandy Yung, and Maryam Schneider, “Human-Animal Interactions in Disaster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구하고 사회적 대응체계는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비인간 생명은 피해자의 범주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미비의 결과가 아니라, 근대적 인간관과 서구적 사고에 뿌리 깊게 자리한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의 산물이다.<sup>6)</sup> 이러한 맥락에서 Donaldson과 Kymlicka는 동물이 단순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동물 혼합 공동체(mixed human/animal communities)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동물은 인간 중심 제도 바깥에서 ‘비시민적 존재’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민(citizen) 또는 거주자(denizen)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7)</sup>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기독교 사회윤리의 핵심 개념이 제공하는 신학적·윤리적 틀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다스림(Dominion Mandate), One Health와 창조세계 돌봄(Creation Care),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와 신앙공동체의 위로, 공동선(Common Good) 개념을 이론적 분석의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 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다스림(Dominion Mandate)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인간과 동물의 위계적 관계는 창세기 1장 26~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 개념에 근거해 정당화되어 왔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다는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해석과 결합

---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14 (2023), 369-381.

6) Layna Droz, “Anthropocentrism as the scapegoat of the environmental crisis: a review,” *Ethics, Science & Environmental Politics* 22 (2022), 25-49.

7) Sue Donaldson and Will Kymlicka,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4.

하여 동물을 종속적 존재로 간주하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여러 신학자와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이 현대의 생태위기와 동물학대 문제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비판하였다.

린 화이트는 현대 생태위기의 사상적 기원을 중세 기독교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찾으며 자연을 지배와 관리의 대상으로 이해한 전통이 생태적 파괴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기독교 내부에서 모색하면서 성 프란체스코가 보여준 모든 피조물의 근원적 평등성을 새로운 신학적 모델로 제시하였다. 성 프란체스코의 관점은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지배 개념을 비판하고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피조세계 전체를 형제적 관계로 이해하려는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sup>8)</sup>

이 같은 비판은 동물윤리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앤드류 린지는 기독교 전통이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간과하고 도구화하는 문화를 강화해 왔다고 비판하였고, 톰 리건 역시 기독교적 인간중심주의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였다.<sup>9)</sup> 존 패스모어 또한 서구 기독교 윤리의 역사적 전개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주변적 문제로 취급해 왔음을 비판하면서 생태적 회심(ecological conversion)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10)</sup>

한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Imago Dei* 개념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신학적 관점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었다. 실체적 관점(the substantial view)은 인간의 이성·도덕성 등 고유한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 인간을

8)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 (1967), 1203.

9) Andrew Linzey and Tom Regan, *Animals and Christianity: A Book of Reading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7), 156-157.

10) 성영곤, "생태위기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재고찰: 린 화이트의 중세기술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19 (2007), 2-4.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기능적 관점(the functional view)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도록 부여된 책임적 통치 기능으로 이해하면서 다스림을 청지기적 돌봄의 과제로 재해석한다. 그러나 이 관점 역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타자·피조물과 맺는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계적 관점(the relational view)은 모든 피조물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신학적 토대를 제시한다. 현대 생태신학과 기독교 사회윤리는 관계적 관점을 계승하여 Imago Dei를 지배의 특권이 아닌 창조세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요청으로 재해석한다. 이 관점은 인간 중심적 재난 대응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재난 상황에서도 인간 이외의 생명을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다.<sup>11)</sup>

## 2. 박탈된 슬픔(Disenfranchised Grief)과 공동체적 애도

동물의 제도적 배제는 사회적 담론뿐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경험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반려동물 상실의 경우 보호자들은 인간 가족의 죽음과 유사한 수준의 상실감을 경험하지만, 사회는 이를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특정한 상실이 사회적으로 애도로 인정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서적·사회적 고립을 박탈된 애도라 한다.<sup>12)</sup>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감정적 충격이 아니라 심리적 외상으로 심화된다.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은 보호자들이 호소하는 우울감, 죄책감, 분노, 무력감, 일상 기능 저하

11) 김성호, “기독교는 동물에게 친구인가 적인가? Imago Dei 개념을 중심으로,” 『리토피아』 가을호 (2022), 42-44.

12) Millie Cordaro, “Pet loss and disenfranchised grief: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4/4 (2012), 287-289.

등의 복합적 정서 반응은 Pet Loss Syndrome(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의 차원을 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장기화된 애도 반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위기 상황이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상실은 공적 애도나 사회적 지원 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는 애도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교회와 신앙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공동체적 사건으로 다루어 왔지만, 반려동물의 상실은 여전히 공적 신앙의 담론 바깥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곧 생명의 서열화된 인식이 신앙공동체 내부에까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신앙공동체가 인간 중심적 애도 관행에서 벗어나 동물의 상실을 공적 애도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창조세계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3. 창조세계 돌봄(Creation Care)과 One Health

창조세계 돌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윤리 중 하나로, 인간이 창조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신학적 명령에 기초한다.<sup>14)</sup> 성경 창세기 2장 15절은 인간이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증언한다. 이는 인간이 피조세계를 돌보고 보전해야 할 책임적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산업화와 도구주의적 사고는 이러한 신학적 명령을 주변화하고 자연과 동물을 지배와 활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피해가 부차적이거나 ‘존재하지 않

13) Rachel M Park, Kenneth D Royal, and Margaret E Gruen, “A literature review: Pet bereavement and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Applied Animal Welfare Science* 26/3 (2021), 295-297.

14) Sandra Richter, A Biblical Theology of Creation Care, *The Asbury Journal* 62/1 (2007), 68-69.

는 일로 취급되는 현상은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결과다. 창조세계 돌봄의 윤리는 이러한 왜곡된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인식의 회복을 요청한다.

인간과 비인간 생명을 본질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재난 대응의 실천적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One Health는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통합적 접근 개념이다.<sup>15)</sup>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WOAH),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등 국제기구는 One Health를 공중보건과 재난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인간과 반려동물이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도적 대응이 인간 피해에만 집중된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재난을 인간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사회 구조를 보여준다. One Health 관점은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며 생명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지향하는 통합적 패러다임이다. 재난 대응을 인간 중심의 위기관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동물·환경을 하나의 생명체계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 사회윤리와 결합될 때 더욱 확장성을 갖는다. 창조세계 돌봄의 윤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생명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책임지는 청지기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회와 신앙공동체는 인간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대응 방식을 넘어 비인간 존재의 고통도 함께 다루는 공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가 인간과 동물, 환경이 연결된 공동체적 생명망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증언하게 된다.

---

15) World Health Organization, One Health, WHO, 2023, <https://www.who.int/health-topics/one-health> (2025년 11월 12일 접속)

#### 4. 공동선(Common Good)과 공적 신앙의 확장

공동선의 개념은 이러한 논의를 공적 신앙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기독교 사회윤리에서 공동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번영과 정의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윤리 원칙이다.<sup>16)</sup> 오늘날의 생태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공동선은 인간 사회를 넘어 피조물 전체의 번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이 생태계와 맺고 있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윤리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함의한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를 넘어 공공 영역에서 윤리적 행위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신앙공동체가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 사회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를 제도적 신앙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책임 주체로 확장시킨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주변화된 생명들의 고통을 공적 담론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교회의 공적 신앙 실천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된다. 반려동물 상실과 같은 경험을 공동체적 애도와 사회적 기억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공동선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한 방식이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은 교회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 피조물 전체를 포괄하는 공적 책임 공동체로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16) David Hollenbach는 공동선을 “개인이나 집단이 더욱 충만하고 쉽게 자신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들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David Hollenbach, *The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7-26.

## IV.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피해자들의 경험은 양적 지표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정서적·사회적·신앙적 층위를 지닌다. 특히 반려동물 상실이라는 주제는 공적 담론에서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슴기 살균제 참사로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서사 속에 담긴 사회적·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들의 경험은 양적 지표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정서적·사회적 층위를 지닌 데다가, 특히 반려동물 상실이라는 주제는 공적 담론에서 주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심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의미구조 해석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참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별적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심층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

특히 본 연구는 피해자의 경험을 주제적으로 분석하여 공통된 의미 구조를 도출하는 주제분석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주제분석은 자료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패턴을 식별하고, 경험의 심층적 층위를 해석하는 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sup>17)</sup>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사례 서술을 넘어, 참여자의 서사에 내재한 구조적·신학적 함의를 분석하고 해석적 연결 지점을 마련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

17) Virginia Braun and Victoria Clarke, ,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2006), 80-81.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가슴기 살균제 제품에 노출되어 반려동물을 잃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보호자 8가구 9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가 협력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참여자 선정은 가슴기 살균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것, 해당 기간 동안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건강 이상을 겪었을 것, 그리고 반려동물 상실과 관련된 정서적·사회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7명은 고양이 또는 개를 반려하던 중 피해를 경험했으며 2명은 복수의 반려동물을 잃은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 당시 참여자의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고 전체 참여자 가운데 남성은 1명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실 이후 심리적 충격, 사회적 고립감, 제도적 무력감 등을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 3.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다. 인터뷰는 1인당 1회에서 2회 실시되었고 회당 시간은 약 90분에서 120분이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집 또는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뒤 전 과정을 녹음하고 전사했다. 면담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경험을 주도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인터뷰에서 다룬 핵심 질문은 참여자가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 이상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묻고 상실 이후 나타난 정서적·사회적 반응을 탐색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제도적 지원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실 경험을 참여자가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시했다.

#### 4. 자료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의 절차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문자로 전사한 후, 개방코딩을 실시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이후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코드들을 통합하여 범주화하였으며, 범주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주제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경험의 핵심 요소를 드러내는 의미 단위를 코드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드 간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범주 간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과 연관된 핵심 주제—예컨대 ‘보호자의 죄책감’, ‘박탈된 애도와 사회적 고립’, ‘제도적 배제 경험’ 등—을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을 진행하고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토와 연구 참여자 확인을 병행하였다.

#### 5. 연구 윤리와 신뢰성 확보

본 연구는 참여자의 정서적 경험과 사적 서사를 다루는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구 윤리 준수가 필수적이다. 연구는 대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IRB 승인을 받은 뒤에 진행되

었다. 연구자는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자료 활용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익명화 처리하였고, 모든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는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보관되었다. 또한,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 동료검토, 연구자 자기성찰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자신의 가치 판단이 분석 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일지를 작성하였고,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이라는 정서적 경험을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구조적 맥락과 신학적 함의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가슴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인간만의 재난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함께 영향을 받은 복합적 재난이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제도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피해자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이러한 배제 경험은 단순한 정서적 상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과 제도적 무력감, 그리고 깊은 자기 비난과 침묵의 서사로 이어지고 있었다.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의 진술은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첫째, 재난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이 드러낸 취약성과 그에 대한 제도적 배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반려동물 상실 경험은 박탈된 애도의 전형적 양상을 보였고 Pet Loss Syndrome에 해당하는 정서적 반응이 두드러졌다. 셋째, 사회적 침묵과 죄책감이 결합하면서 참여자들은 깊은

고립의 서사를 형성하였다. 넷째, 피해를 둘러싼 경험은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했고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 1. 비인간 생명의 취약성과 제도적 배제 - 일상적 화학물질 노출과 One Health의 결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험은, 가습기 살균제가 단지 ‘특수한 제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제품에는 위해성 정보가 부족했고 경고 표시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발생한 피해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상황에 머물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으로 드러났다.

“그냥 습도 조절하려고 썼던 거예요. 그때는 TV 광고에도 ‘아기 방에 좋아요’ 이런 문구가 나왔으니까요. 집에 두는 게 당연한 제품이었어요. 위험하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참여자 J)

“가습기에 물만 넣는 게 아니라 살균제를 넣는 게 깨끗하게 사는 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참여자 F)

또 다른 참여자는 당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던 ‘청결 담론’과 ‘제품 신뢰’가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허가했고, 광고에서 아기 사진까지 넣어서 홍보했는데 누가 그

걸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어요? 피해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좋은 제품’이라고 믿은 거예요.” (참여자 C)

이러한 진술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생활환경과 소비문화, 위해성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정용 화학제품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실내 환경에 침투했고, 피해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의 위해성 정보는 부재했고, 위험 경보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간과 비인간 생명 모두가 무방비 상태로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지점에서 본 사건은 One Health의 핵심 전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One Health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축의 위해가 곧 다른 축의 위해로 확산된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바로 이 상호의존성이 ‘가장’이라는 실내 환경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공기 속에 있었는데 사람만 피해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도 나랑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요.” (참여자 H)

“반려동물은 집에서 제일 먼저 이상이 나타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기록하지도, 묻지도 않았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참여자 F)

이러한 진술은 동물의 피해가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지표였음을 시사한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의 증상과 죽음은 재난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공중보건 및 재난 대응체계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감시(surveillance) 기능 또한 상실되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저랑 7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이가 숨을 가쁘게 쉬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몰랐어요. 나중에 뉴스를 보고서야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어디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도 그 죽음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참여자 C)

“병원에 가도 수의사가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을 텐데도 아무런 자료도, 정보도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그렇게 사라졌어요. 기록에도 안 남고.” (참여자 D)

이러한 진술은 재난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이 제도와 사회적 담론 속에서 구조적으로 비가시화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것이 기록되지 않고, 피해자 범주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된 재난 대응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반려동물의 피해는 인간의 피해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었음에도 ‘공적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침묵의 영역에 머물렀다.

## 2. 박탈된 애도와 Pet Loss Syndrome

모든 참여자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상실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의 서사에는 깊은 우울감, 죄책감, 충격, 부정, 분노, 그리고 장기화된 슬픔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박탈된 애도와 Pet Loss Syndrome의 전형적 양상이 드러났다.

“아이가 죽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아무도 제 슬픔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고양이잖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게 제일 상처였어요. 그 말은 제 슬픔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잖아요.” (참여자 A)

“정말 가족이 죽은 거랑 똑같았어요. 매일 아침 이불을 들추면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 고양이 입양하면 된다’고만 말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쏘았어요.” (참여자 E)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 아이가 가족이었거든요. 이름도 있고, 함께 살았고, 함께 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냥 동물이니까.” (참여자 G)

한 참여자는 신앙공동체에서조차 슬픔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언급했다.

“교회에 나가도 누구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 슬픔은 여기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참여자 D)

이러한 진술들은 반려동물 상실이 단순한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 부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고립, 자기 비난, 장기화된 애도와 같은 정서적 후유증으로 이어졌고, 참여자들 다수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 3. 사회적 침묵과 죄책감의 서사

참여자들의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또 다른 주제는 침묵과 자기 비난이었다. 반려동물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작은 일로 취급되는 분위기 속에서 보호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언어와 공간을 잃었다. 그 결과 보호자들은 내면화된 죄책감에 시달렸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이상하게 보일까 봐 입을 다물었어요.” (참여자 G)

“내가 가습기를 치렀다면,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생각부터 났어요.” (참여자 B)

“진짜 이상한 건, 그 일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나는 지금도 아이가 내 무릎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참여자 A)

이 침묵은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와 담론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보호자들은 슬픔을 표현할 공적 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가해자로 인식하는 왜곡된 정서 구조 속에 놓였다. 또한, 이 침묵은 사건의 사회적 진상 규명이나 제도적 개선 논의에서도 반려동물의 피해를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사회적 침묵은 개인의 고통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제도적 침묵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 4. 공적 책임과 정의에 대한 요구

이러한 깊은 상실과 고통의 경험 속에서도 일부 참여자들은 점차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발화로 전환해 갔다. 피해자 모임, 동물보호 시민단체, 언론 인터뷰 등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개인의 슬픔을 공적 문제로 전환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참여자 B)

“피해자 모임에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깐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됐어요. 그 전엔 하루하루 죄책감에 눌러 살았거든요.” (참여자 H)

“이 일은 그냥 우리 집의 불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있었고, 그걸 허가한 기관이 있었고, 그걸 아무도 막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참여자 I)

이러한 서사는 단순한 피해자의 서사를 넘어, 공적 정의와 제도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난 대응과 보상 체계에서 동물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을 요구했다. 일부는 시민단체 활동이나 언론 노출 등을 통해 사건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 5. 분석 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습기 살균제 참사가 단순한 환경 위해 사건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함께 영향을 받은 생활환경 재난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경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반려동물은 동일한 실내 환경에 노출된 존재였음에도 재난 대응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비인간 생명의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가시화하지 못하는 현재의 재난·보건 체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둘째, 반려동물 상실은 보호자 개인의 정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인정의 부재 속에서 깊이 고립된 애도로 이어졌다. 특히 박탈된 애도와 Pet Loss Syndrome은 제도적 지지 부족과 맞물려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낳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들은 사회적 침묵 속에서 죄책감과 자기 비난을 내면화했으며 이러한 감정 구조는 피해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사회적 담론과 결합해 더욱 강화되었다. 넷째, 일부 참여자들은 상실 경험을 사회적 발화로 전환하며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주체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슬픔은 공적 문제로 재구성되었고 동물 피해의 제도적 인정과 재난 대응 체계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발전했다.

이상의 분석이 보여주는 바는 분명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재난·보건 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가정용 화학제품이라는 일상적 물질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 위해를 초래했음에도 동물 피해는 공적 기록과 제도적 논의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는 인간·동물·환경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하는 One Health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대한 균열이며, 피해가 조기에 감지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작은 체구와 빠른 대사율, 낮은 생활공간 위치 등으로 인해 실내 화학물질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생명체였다. 그러나 그 신호는 공적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 무관심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경

보 체계의 작동을 지연시켰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도 더 큰 재난으로 이어졌다.

또한, 반려동물 상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애도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은 인간 중심적 생명 이해가 사회적·제도적 층위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 D의 진술이 보여주듯, 신양공동체조차 반려동물 상실의 고통을 공적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개인의 슬픔을 사소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의 경계가 인간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런데도 일부 참여자들이 고립의 경험을 넘어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주체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반려동물 피해가 개인의 사적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정의와 책임 논의로 확장되어야 할 당위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 VI. 논의

본 연구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 단순한 환경오염이나 산업적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동물·환경이 연결된 생명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생명 재난임을 확인하였다. 이 재난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 재난 개념을 확장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일상적 소비 행위가 보건과 복지의 취약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One Health 관점에서 본 사건은 인간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지만, 제도적 대응에서는 이러한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피해는 성인보다 반려동물과 영유아에게서 먼저 나타났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리적·구조적 취약성에 기초한 선행 신호였다. 그러나 재난 대응체계는 이들의 피해를 공적 지표로 수집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기 경보의 기회를 잃었고 피해는 확산되었다.

## 1. 인간 중심적 재난 대응 체계와 민감 생명체의 비가시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반려동물과 영유아에게서 먼저 나타났다. 이는 환경 유해 물질 노출 시 체구가 작고 호흡량 대비 체표면적이 넓은 집단이 높은 취약성을 보인다는 생리적 특성과 관련된다. 이들은 실내 하부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경향이 있어 유해 물질에 더욱 직접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공중보건과 재난 대응체계는 이들의 증상을 공적 피해 지표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감지할 기회를 놓쳤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누락이 아니라 재난과 피해를 정의하는 기준이 성인 중심·인간 중심의 관점에 의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공적 피해의 범주에서 민감 생명체가 배제되는 구조적 현실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피해의 선행적 징후는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체 피해의 확산과 심화를 초래하였다.

## 2. 박탈된 애도와 관계적 생명윤리의 결핍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애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동물의 죽음은 실질적 상실 경험이었으나, 사회적 시선은 이를 정당한 애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Pet Loss Syndrome의 전형적 양상으로, 슬픔의 사회적 인정 부재가 개인의 정서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 박탈된 애도는 개인의 심리적 상처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와 연결된다. 이는 인간 생명만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인정 체계가 비인간 생명과 그 상실 경험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회윤리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생명의 서열화에 근거한 신학적·문화

적 관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애도는 인간 생명을 전제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동물의 죽음은 정서적·제도적 애도 공간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하는 신학적 전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서열화된 생명 이해는 신앙적 기초와도 충돌한다. 이 사건은 공동체적 돌봄과 관계적 생명윤리의 결핍을 여실히 보여준다.

### 3. One Health 관점의 윤리적 전환과 창조세계 돌봄의 신학적 과제

본 사건은 One Health 접근이 단순한 학제 간 협력 모델을 넘어, 생명을 수단적 존재가 아닌 공유 환경의 주체로 재인식하는 윤리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사용한 ‘민감 생명체’ 범주는 기존의 센티넬 동물 개념을 비판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인간·동물·환경의 상호 의존성과 생명 공동체적 관점을 강조한다. 반려동물과 영유아에게서 나타난 초기 피해는 재난의 본질을 조기에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였으나 당시 제도는 이러한 신호를 재난 대응체계 안에 통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조기 대응의 가능성이 사라졌고 피해는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이는 Imago Dei와 창조세계 돌봄의 신학적 원리와의 맞닿아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신학적 전제는 인간 사회의 복지에 대한 책무를 넘어 피조세계 전체의 안녕을 책임 있게 돌보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sup>18)</sup> 따라서 반려동물과 환경의 생명을 공공의 책임 구조 안에 포함시키는 일은 단순한 제도적 개선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자 공공 윤리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명공동

18) Kim Seong Ho,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생태윤리—Imago Dei 와 One Health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5 (2023), 22-29.

체를 고려하지 않는 재난 대응체계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 이해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4. 사회복지 실천의 확장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회복지 실천이 인간 개인을 중심으로 설정된 범주 안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상실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 그리고 일상적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남긴다. 그런데도 현행 사회복지 제도는 반려동물을 돌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은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겪게 된다.<sup>19)</sup>

또한, 가정용 화학제품의 위해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할 보건·복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이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적 애도 공간을 마련하는 일, 민감 생명체의 피해를 포함한 환경·보건 재난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일, 보건·수의·복지 영역이 상호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One Health 관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모델을 제도화하는 일 등이 그 구체적 과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보완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의 대상과 목적, 실천 방법을 재정의하는 전환을 요구한다.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복지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낳아 민감 생명체의 고통을 가려왔지만, 통합적 생명공동체 관점은

---

19) Melissa Laing and Christopher Maylea, "They burn brightly, but only for a short time: The role of social workers in companion animal grief and loss," *Anthrozoös* 31/2 (2018), 222-225.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 VI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피해 양상을 분석하여 환경 위해가 가정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어떻게 인간과 민감 생명체에게 선행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 감시와 대응이 인간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본 연구의 핵심적 성과는 민감 생명체의 피해를 주변적 신호가 아닌 재난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 지점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반려동물 상실이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박탈된 애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생명 이해의 전환이 신학적·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실천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첫째, 재난 대응 및 환경보건 감시 체계는 민감 생명체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 상실과 같은 관계적 상실 경험을 사회적·제도적 돌봄 체계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Imago Dei와 창조세계 돌봄의 신학적 관점을 통해 인간 중심의 생명 이해를 재검토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범위를 생명 공동체 전체를 향한 책임적 돌봄으로 확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특정 맥락 속에서 민감 생명체의 취약성과 애도 구조, 그리고 인간 중심적 대응체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맥락의 특수성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핵심 논점은 One Health 기반 재난 대응과 신학적·사회복지적 실천을 확장하는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의미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가 생명공동체 관점에서 재난 대응체계를 재구성하려는 향후 연구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KBVP 한국수의임상포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확대 및 제품 위해성 조사—가습기살균제 반려동물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서울: KBVP, 2020
- Kim, Seong Ho.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생태윤리—Imago Dei와 One Health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5 (2023), 9-36.
- 김성호. “기독교는 동물에게 친구인가 적인가? Imago Dei 개념을 중심으로.” 『리토피아기독교사회윤리』 가을호 (2022), 38-49.
- 변지은, 김희성, 박문영, 이경무, 홍명근, 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 규모 추산.”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6/4 (2020), 457-469.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2022.
- 성영곤. “생태위기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재고찰: 화이트의 중세기술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19 (2007), 1-37.
- 홍성만, 한준섭. “사고, 재난, 그리고 참사의 사회적 구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확산과정.” 『한국공공관리학보』 33/4 (2019), 223-258.
- Braun, Virginia and Clarke, Victoria.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2006), 77-101.
- Cordaro, Millie. “Pet loss and disenfranchised grief: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4/4 (2012), 283-294.
- Donaldson, Sue & Kymlicka, Will.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Droz, Layna. “Anthropocentrism as the scapegoat of the environmental crisis: a review.” *Ethics, Science & Environmental Politics* 22 (2022), 25-49.
- Hollenbach, David. *The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Laing, Melissa and Maylea, Christopher. “They Burn Brightly, But Only for a Short Time: The Role of Social Workers in Companion Animal Grief and Loss.” *Anthrozoös* 31/2 (2018), 221-232.

Linzey, Andrew and Regan, Tom. *Animals and Christianity: A Book of Reading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7.

Park, Rachel M., Royal, Kenneth D., and Gruen, Margaret E. "A literature review: Pet bereavement and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Applied Animal Welfare Science* 26/3 (2021), 285-299.

Sandra Richter, A Biblical Theology of Creation Care, *The Asbury Journal* 62/1 (2007), 67-76.

White,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967), 1203-1207.

Wu, Haorui, Heyland, Lindsay, Yung, Mandy and Schneider, Maryam. "Human-Animal Interactions in Disaster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14 (2023), 369-381.

World Health Organization. One Health. WHO, 2023.

<https://www.who.int/health-topics/one-health> 2025년 11월 10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4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07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동일한 생활환경에서 동시에 노출된 피해 양상을 분석하고,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 9명의 경험을 심층 인터뷰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의 이상 반응은 위해의 초기 징후로 나타났으나 제도적 대응은 비인간 생명의 피해를 공적 범주로 인정하지 못했다.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했음에도 사회적 승인 부족으로 인해 상실이 박탈된 애도의 형태로 경험되었고, 이는 재난의 심리적·윤리적 영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고립된 애도의 단계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공적 행위자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재난 체계가 복합적 생명 피해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며, One Health 관점에서 인간·동물·환경의 상호의존성을 재난 대응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불어 반려동물 상실을 공적 애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사회윤리의 창조세계 돌봄 관점이 신학적·사회복지적 논의를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반려동물 상실, 박탈된 애도, 재난 대응, One Health, 창조세계 돌봄

---

